

벤처 레이더

VENTURE

Radar

정책동향

KOVIA

벤처 M&A 비과세 검토

산업자원부 윤진식 장관은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벤처기업 인수합병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 때 세금

을 부과하고 있어 인수합병이나 퇴출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첨단업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토지를 최장 50년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하는 등 투자환경 개선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인 노 대통령 訪美 수행

벤처기업협회 장흥순 회장을 비롯한 벤처기업인 6명과 경제5단체장 및 주요 재계 리더들이 경제인 사절단 자격으로 노무현 대통령 방미시 동행한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경제인 사절단은 경제분야의 민간외교를 펼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사절단은 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정상회담이나 각종 행사를 통해 대통령이 제시하는 경제관련 정책들의 비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 사절단은 사절단 공식행사 외에도 개별 기업차원에서 민간 경제외교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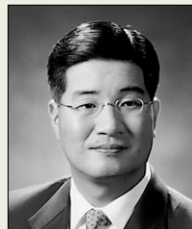
특히 이번 노 대통령 방미에는 휴맥스 변대규 대표, 로커스 김형순 대표, 안철수연구소 안철수 대표,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대표 등 리딩 벤처기업인들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문시 동행할 계획이다.



장흥순
테보테크 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



김형순
로커스 대표



안철수
안철수연구소 대표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

코스닥사 '집단소송제' 비상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관련, 정치권이 소송대상기업을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코스닥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회계 관행이나 시장 특성상 코스닥기업들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에 휘말릴 우려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소송대상 기업은 현재 78개(자산 2조원 이상)에서 1540개(거래소 681개, 코스닥 859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분식회계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체 법무팀 등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벤처기업은 집단소송에 거의 무방비상태여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코스닥 등록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어서 집단소송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도 기업 존립이 흔들리게 된다"며 "곧장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도산 기업이 속출하고 가뜰이나 위축된 코스닥시장과 벤처업계의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 자산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법적 대응능력이나 자본력이 취약해 집단소송제를 감당하기가 힘든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24호 포커스에서 다음에 정입니다.〉

盧 대통령, "벤처기술 평가받는 시장 조성"

노무현 대통령은 세계 일류상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 대표 초청 오찬에서 "국가발전 5대 전략의 첫번째 전략으로 채택한 것이 기술혁신"이라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에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벤처산업과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핵심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벤처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아직 갖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합리적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산업동향 ...

KOVIA

서울 벤처기업 수출 급증

올들어 서울지역 벤처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서울지역 총 수출액은 56억1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5.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지역 벤처기업 수출액은 총 3억9900만 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5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총 수출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분기 4.46%에서 올 1분기 7.11%로 높아졌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수출환경 악화로 전체 수출이 줄어드는데 불구하고 벤처기업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IT수출 13개월 연속 증가세

IT산업 수출이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3월 한 달 동안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산업의 수출은 작년 3월 대비 13.2% 증가한 43억2000만 달러, 수입은 32억4000만 달러로 10억8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IT산업 수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출 154억1000만달러 중 2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IT 수출증가는 반도체의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GSM 및 CDMA 컬러단말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비롯해 노트북PC·모니터 등 주력품목이 수출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 업계동향 ...

KOVIA

〈NT〉 정부, 올해 NT분야에 2496억원 투입

정부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총 2496억원 규모의 '2003년 나노기술(NT)발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나노핵심·원천기술 개발에 1652억원, 연구개발 핵심 인프라 확충에 731억원, 인력육성에 113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BT〉 정부 올해 BT 분야에 5393억원 투입

올해 생명공학(BT)에 대한 정부의 투자규모가 지난해 보다 20%늘어난 5393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 심의를 거쳐 BT 관련 7개 부처 공동으로 올해 BT 분야에 작년보다 19.8% 늘어난 5393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생명공학육성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올해 포스트-지놈시대를 주도할 기능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분야와 신약개발 등 전략 기술에 투자가 확대되고 BT, IT, NT 등 신기술간 융합분야 및 전통산업과의 접목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4166억원, BT 인력양성, BT 안전 및 기술 하부구조 등 인프라 관련에 127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